

차기 한류 이끌어갈 콘텐츠 찾는다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 공모
한한령 등 어려움 겪는
제작업계 지원위해 예산 증액
1인 방송 등도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차기 한류를 이끌어갈 드라마 등 제작을 지원할 방송영상콘텐츠를 공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우수 방송영상콘텐츠를 공모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올해 제작을 지원하는 부문은 ▲다큐멘터리, 단막극, 연속물 등 방송영상콘텐츠(45억4000만원) ▲웹드라마, MCN 콘텐츠 등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10억2000만원) ▲다큐멘터리·예능, 연속물·단막극 등 실버문화 방송콘텐츠(15억원) ▲포맷



드라마 '시임당 빛의 일기'

개발(17억2000만원) 등으로 총 88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한한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40% 증액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올해 2월 베를린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작 '임무'가 그랑프리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고 드라마 '사

임당 빛의 일기', '옥중화', '뿌리 깊은 나무' 등도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이 함께 제작을 지원한 작품들이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단막극 제작뿐 아니라 신진 창작자들의 우수 단막극 기획안을 발굴해 기획·개발 단계부터 본편 제작, 국내·외 유통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내용도 이뤄진다.

1인 방송과 웹드라마를 비롯한 뉴미디어 콘텐츠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기획·제작, 해외 마케팅 등도 지원한다. 다음달 11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발 한한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작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조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외에도 웹드라마와 1인 방송, 포맷 등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내 미래 성장동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 공연 & 전시 ◀

전주시립교향악단 '차이콥스키 vs 라흐마니노프'

전주시립교향악단은 219회 정기연주회 '러시아의 거장 차이콥스키 vs 라흐마니노프'를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갖는다.

시립교향악단은 이날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김규연과 차이콥스키의 피아노협주곡 1번과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을 연주한다. 독특하고 명료한 색깔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김규연은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성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러시아의 대작곡가인 차이콥스키는 3곡의 피아노협주곡을 작곡했는데, 1번 협주곡만이 유독 유명하다. 특히 1악장은 스케일이 크고 위엄이 있는 소나타 형식을 갖춘다.

4개의 호른이 주도하는 강렬한 화음에 실려 피아노가 양감 있는 가락을 치며 개시되는 이 부분은 이 협주곡을 유명하게 만든 매력이다.

이 곡은 나중에 라흐마니노프에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라흐마니노프는 차이콥스키에게 배웠으며 그를 멘토로 삼았다. 차이콥스키가 죽었을 때 '위대한 예술가의 회상'이라는 곡을 쓰기도 했다.

피아니스트인 라흐마니노프는 자기가 연주할 목적으로 많은 피아노곡들을 작곡했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높은 기교를 발휘한다.

이 중에서도 교향곡 제2번은 서구적 낭만성이 강렬하면서 러시아적 우수가 감도는 걸작이라 평가되고 있다. 3악장 Adagio는 그 선율이 아름답고 낭만적이어서 영화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연주된다. /정해은 기자



▶ 그루브 밴드 '자미로콰이', 정규 8집 '오토마톤' 발표

'인공지능·과학기술의 발달, 인류는 '기쁨'을 잃어간다'

세련된 그루브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애시드 재즈밴드 '자미로콰이'가 31일 유니버설뮤직을 통해 정규 8집 '오토마톤(Automaton)'을 발매했다. 정규 앨범으로만 따지면 2010년 정규 7집 '록 더스트 라이트 스타(Rock Dust Light Star)' 이후 무려 7년 만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중적인 디스코 리듬의 전자음악을 흡수해온 자미로콰이와 현재 EDM 열풍이 만나 신선하고 새로운 전자음악의 부흥을 예고한다.

펑크(Funk), 솔, 디스코를 기반으로 전자음악의 비중을 높인 음악이란 점에서 최근 EDM의 흐름과 유사성을 보인다. 유니버설뮤직이 설명했다.

하지만 전자음악의 첫 번째 전성기이자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 공상과학적인 상상력이 만발했던 80년대 기운까지 아우른 자미로콰이의 전자음악은 다르다. 이번 앨범에는 디스코 사운드와 현란한 전자음악으로

가득 찬 '오토마톤'과 화려한 색소폰 연주가 돋보이는 곡으로 애시드 재즈를 상징하는 '비타민(Vitamin)', 사랑과 이별에 관한 주제의 '클라우드(Cloud) 9', 월드 스타일 합창 리듬이 스며있는 '나이트 아웃 인 더 정글' 등 총 12곡이 수록됐다.

유니버설뮤직은 "디스코, 재즈, 힙합, 펑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시도가 깃들어서 자미로콰이의 활동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미로콰이의 보컬 제이 케이이는 이번 앨범에 대해 "오늘날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인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인류가 어떻게 '기쁨'이라는 감정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도요.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 모두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이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간단한 표현인데도 말이죠"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뉴스시스

내일 국립민속국악원 '봄춘춤'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은 하늘이 맑아지는 청명을 맞아 '봄춘춤' 공연을 4일 오후 7시 30분 예원당에서 연다.

청명을 주제로 한 이날 무대는 민속국악원의 계절별 절기공연 중 하나로 올해부터 새로 선보인다. 국악원 무용단은 봄을 상징하는 전통춤 레퍼토리와 농부들이 즐긴 춤사위가 무대화 되는 한국 춤의 현장으로 봄의 정경을 묘사한다.

무용단은 봄날 다행히 지저귀는 피꼬리 한 쌍을 표현한 궁중춤 '쌍춘연정', 민개한 봄꽃과 나비의 움직임 표현한 '화선무'와 '호접무', 농사철을 알리는 절기인 청명에 맞춰 농부들이 즐긴 춤사위 중 '벽구춤'과 '금회복춤'으로 신명을 두드러다 삼면에 다섯 개의 북을 걸고 두드리는 '오고무'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북보다는 작고 소고 보다는 큰 북구가 빛내는 신명나는 벽구춤과 커다란 고깔과 함께 정정거리는 진법인 일품인 금회복춤은 서로의 춤을 가지고 대전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공연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서한우, 배관호 선생에 의해 본격 무대화 되고 있는 한국 춤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예약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전화(620-2324)로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도립국악원, 종합적 전수시설 건립사업 본격 추진

27일까지 전통문화 체험 전수관 신축 기본·실시설계 용역업체 모집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은 어린이 회관 인근 부지에 도립국악원 예술단과 어린이 예술단의 체계적인 연습을 위해 종합적인 전수시설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악원의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시설은 연면적 2,800㎡에 지하1층·지상4층으로, 전통문화전수시설·전통국악전수시설·어린이전수시설 등 종합적인 연습장과 전수

기능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립국악원은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설계 제안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는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 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국입찰 방식으로 기존에 적합한 업체 등이 참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모집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전북도립국악원 사무국 관리팀(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설계심사를 통한 당선자에게는 5억6100만원 상당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악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설계 제안공모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영상위, 인턴·업체 모집

(사)전주영상위위원회는 전북지역 영화제작인력 인턴십 사업 인턴·업체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인력이 필요한 영화·영상관련 업체 및 도내에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제작사로 지역 제한이 없다.

인턴은 18세 이상인 전북도민 및 도내 소재 고등학교 이상 출신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전주영상위 홈페이지(www.jf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인턴과 업체별 각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2017.4.7(금) ~ 4.12(수) 6일간

정음천변어린이축구장 및 벚꽃로 일원

개막식 및 축하공연 4.7(금) 18:30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4.7(금) ~ 4.9(일)
 벚꽃 버스킹, 버블쇼, 키다리 배에로 풍선마임, 석고마임, 캐릭터 인형탈, 이벤트 존, 봄노래 존, 로맨틱 포토존

벚꽃 야간 경관 조명 4.1(토) ~ 4.16(일)
 제56회 전라예술제 4.8(토) ~ 4.12(수)
 제13회 자생화전시회·제6회 자생차 페스티벌 4.7(금) ~ 4.12(수)
 체험, 간식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4.7(금) ~ 4.12(수)

차량통제안내 : 4.7(금) 22:00 ~ 4.9(일) 22:00

-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 정주교 ~ 정동교(1.2km)

초대가수 공연

| | |
|------------|------------|
| <p>송대관</p> | <p>김용임</p> |
| <p>마틸다</p> | <p>볼록</p> |

정주/조연비/오대성/양재동

주최·주관 | 정음시
 JEONGEUP-SI
 문의처 | 정음시청 관광개발과 539-5203